



카뎀퍼디 아띠

9월호

September 2012



밥퍼



빵퍼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캄보디아 도착	6  	7  	8 한글학교 교장선생님면담 시엠립탐방 해원협집들이
9 후일	10   후원물품정리 정기회의	11   아동결연소개	12   프놈그라운탐방 후원물품창고	13   공동체놀이 - 킬링필드	14   시엠립시내탐방 부원장님맞이	15 한글학교
16 주일예배 쓰레기 빵퍼	17   부원장님면담 다일회의참석 정기회의	18   다일시설 전반이해	19   의료봉사에 대한 이해	20   정기회의	21  	22 한글학교 한글학교회식
23 후일	24 후일	25   크메르어수업	26   크메르어수업	27   정기회의	28   도서관프로그램 - 페이스페인팅	29 한글학교 공동체놀이 - 킬링필드
30 후일						

캠핑의 자기소개



한결



안녕하세요~! 저는 한결입니다.
캄보디아 이름은 '깐냐' 로 여기선 깐냐(9월이라는 뜻,
솔직히 아무생각없이 지었습니다 π ㄷ)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활발하고 명랑한 성격으로 모든 운동을 좋아합니다.
특히 직접 축구하는 것, 프리미어리그 보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레알 마드리드, 아스날의 열혈팬! 그러나 운동을 좋아하다보니
가끔은 지나친 승부욕으로 인해 제 자신과 남들을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다양한 것을 배우고, 경험하길 원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항상 도전하고 즐겁게 살아가려고 하는
21살의 꽃다운 학생입니다.



축구 하는 결이를 볼 때 아, 결이한테 맞으면 아프겠구나 싶습니다.
겁나 야무지게 공을 잘 잡니다.네.. 그렇습니다.



지나친 승부욕과 지나친 자기 주장으로 인해 힘들다기보다는
무섭습니다 π ㄷ 좀 줄일려고 노력하고 잘 웃기만 하면 정말 ^^!



활발하긴 하지만 명랑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팀의 포커페이스담당
입니다. 덕분에 특특기사랑 흥정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민기



나는 24살 자칭 부산사나이 조민기입니다.
크메르 이름은 웨인(길다는 뜻)입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계산하는 걸 좋아하는 토목공학도입니다. 하지만
라운아디에서 생각을 자꾸 시켜서 힘들어합니다. 장난치기
좋아하고 아이들을 좋아 하지만 장난을 계속 쳐서 팀원들이 많이
화내고 아이들이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려고 마술 까지 배워왔건만.. 하지만 모든지 낮은 자세로 열심히
배우고 나눌려고 노력하는 아띠입니다.



민기야 힘내^.^ 이젠 장난 그만치고 일상적인 대화를 하자. 임마. 그리고
민기야 너 마술 그만해. 왜 눈치 보면서, 다 티나는 마술을 시도하니...



거짓말치지 마십시오. 계산하는 걸 본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정말 슬프습니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오빠를 좋아하지않는 이유는 뭘까....? 엇싸앗(안잘생긴)
해서가 아닐까....?? ㅋㅋㅋㅋㅋㅋ

용석



안녕하세요. 고용석입니다. 저의 크머르 이름은 섬낭입니다.

'행운'이라는 뜻이 좋아서 택했는데 섬낭이라는 이름의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복잡한 심경입니다. 저의 특징은 배가 푸짐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살이 조금씩 빠지고 있어서 희망적입니다. 저는 술을 좋아합니다. 저의 장점은 잘하는게 조금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려 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점은 재미가 없다는 것이라 했는데, 정말 맞는 말입니다. 음...오빠 이제 재미만 내려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레.알.



크머르 이름이 행운이라는 뜻인데 캄보디아 와서 자전거를 3대 잃어 버리는거 보고 참 이름 잘 지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미가 없긴하지만, 재밌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빠 그대로의 모습이 좋아요.... ^^

지훈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크메르 이름은 지훈인데 아이들이 다 짜은이라고 불러요. 벌써 어느덧 24살인데 생각이나 행동은 10대의 어느 언저리에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열 올리고 있는 일은 자전거타기, 십자수, 그리고 민기와의 관계회복입니다. 특징은... 많이 먹는 것입니다. 또, 혼자 있는 것 좋아하고, 생각도 많은 것 입니다. 장점은 바느질을 잘 한다는 것이고..똥똥하고 열심히 일을 잘한다고 ^^ 팀원들이 말해 줬어요. 야호! 단점은 호불호가 너무 확실해서....요즘 큰 문제입니다. 엉엉. 그리고 좋아하는 것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먹고, 보고 하는 걸 좋아합니다.



똥똥하다고 말한걸 정말 믿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와의 관계 회복에 열 올리고 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똥똥한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전거타기랑 십자수에 정말 열을 올립니다. 걱정됩니다.



언니는 동안입니다.(영혼없는 말투) 호불호가 너무 확실하여..... 무서워요..... ㅠ ㅌ

다일 그리고 밥퍼, 빵퍼

다일공동체는 기독교 사회복지 단체로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급식 사업을 하고 있다. 라온아띠 캄보디아팀은 이곳 캄보디아다일공동체에서 밥퍼, 빵퍼일을 도우며 아이들에게 밥을 나눠주고, 빵을 나눠주고 있다. 그냥 무료로 밥을 준다는 것에서는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과 지속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었다. 하지만 정말 하루에 한끼 맨밥만 먹기도 힘든 가정이 많은데다가 영양실조로 면역력이 떨어져 장티푸스, 말라리아 같은 병으로 쉽게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사실을 알고 밥퍼, 빵퍼를 긴급구조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더 영양가 있고, 맛있는 밥을 먹길 기대하며 캄팀은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캠팀의 하루일과



6:30AM
하루의 시작
피곤하지만
일찍 일어나서
준비합니다.



8:00AM
숙소에서 나와
다 같이 차를타고
센터로 이동합니다.

밥퍼준비



8:30AM
아이들이 밥먹는
장소
바닥을 깨끗히
쓸고, 닦고



식탁을 깨끗히
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메뉴
계란말이만들기



주방에서 만든
요리를 식당으로
옮기고



아이들
식판에
음식을 나눠주고



설거지도
깨끗하게



잠깐의
점심겸
휴식시간



빵퍼 TIME

예쁘게
구워진 빵을
빵봉지에
넣어요



아이들과
즐거워시간



도서관 프로그램 거대한 서막의 시작

캄퐁의 도서관 프로그램의 취지는 많은 아이들이 도서관이 오게 해서 도서관이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의 단합을 활성화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대상을 아이들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밥퍼의 주 대상이 아이들이었고 어른들은 생업을 위해 도서관에 올수 없는 환경이었다. 그래서 앞으로의 도서관 프로그램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행할 예정이다. 도서관 프로그램의 시작으로 페이스 페인팅을 시작하였다.

도서관 프로그램의 시작으로 페이스 페인팅을 넣은 것은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광고효과가 큰 것 같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6일 금요일 오전10~11시와 오후1~2시로 계획했고 오전에는 페이스 페인팅을 받은 아이들을 보고 아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모였다. 그래서 아이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고 한 줄로 서달라고 계속 이야기 했지만 잘 전달되지 못했다. 아이들이 많아 다 헤줄려는 마음에 급하게 하다 보니 예쁘게 그려주진 못하였는데도 아이들이 많이 좋아해주어서 미안하고 고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어 오후에 또 한다고 계속 알렸지만 알아듣지 못하였는지 오후에는 아무도 오지 않아 실망도 하였다. 이번 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제 도서관 프로그램을 이어 나갈것이란 것을 많이 알렸지만 도서관 프로그램을 이어나갈 때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많이 깨달았고 이번 시작을 거울삼아 정확한 의사소통에 나가야겠다고 생각되었다. 나름대로 성공적인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도서관에 많은 아이들이 북적북적 할 때까지 캄퐁 쭈쭈!!



찬금 학교

한국인 아이들의 교육터



우리 캄팀이 맨 처음맡은 라온아띠만의 업무는 한글학교였다. 한글학교는 교민자녀들을 대상으로 국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주말 학교다. 사실 처음에는 한글학교의 필요성에 의문을 느꼈었다. 아이들은 평일에 외국인학교나 혹은 캄보디아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굳이 토요일에 학교를 하나 더 다녀야 하는가 생각이 들었었다. 하지만 아이들과 친해지고 아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니 그렇게 한글학교의 필요성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아이들의 부모님은 보통 여행사 가이드일을 하시는데 캄보디아에서만 하는게 아니라 다른 나라로 많이 옮겨 다니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느 한 나라에 정착해서 살지 못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가 어느나라의 사람이고 어떤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기 힘들다. 그래서 외국인학교에서 다른나라 출신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한다. 이런 거주환경이 불투명한 아이들에게 한글학교가 있음으로써 한국에 대해 가르치고 한국이라는 마음의 고향을 만들어 줄수 있게 된다.





우리들의

'공용일기'



우리 팀은 캄보디아에 도착하는 날부터 지금까지 ‘공용일기’ 를 쓰고 있다. 공용일기란 무엇일까? 대체 우리는 ‘왜?’ 공용일기를 쓰게 됐을까?

공용일기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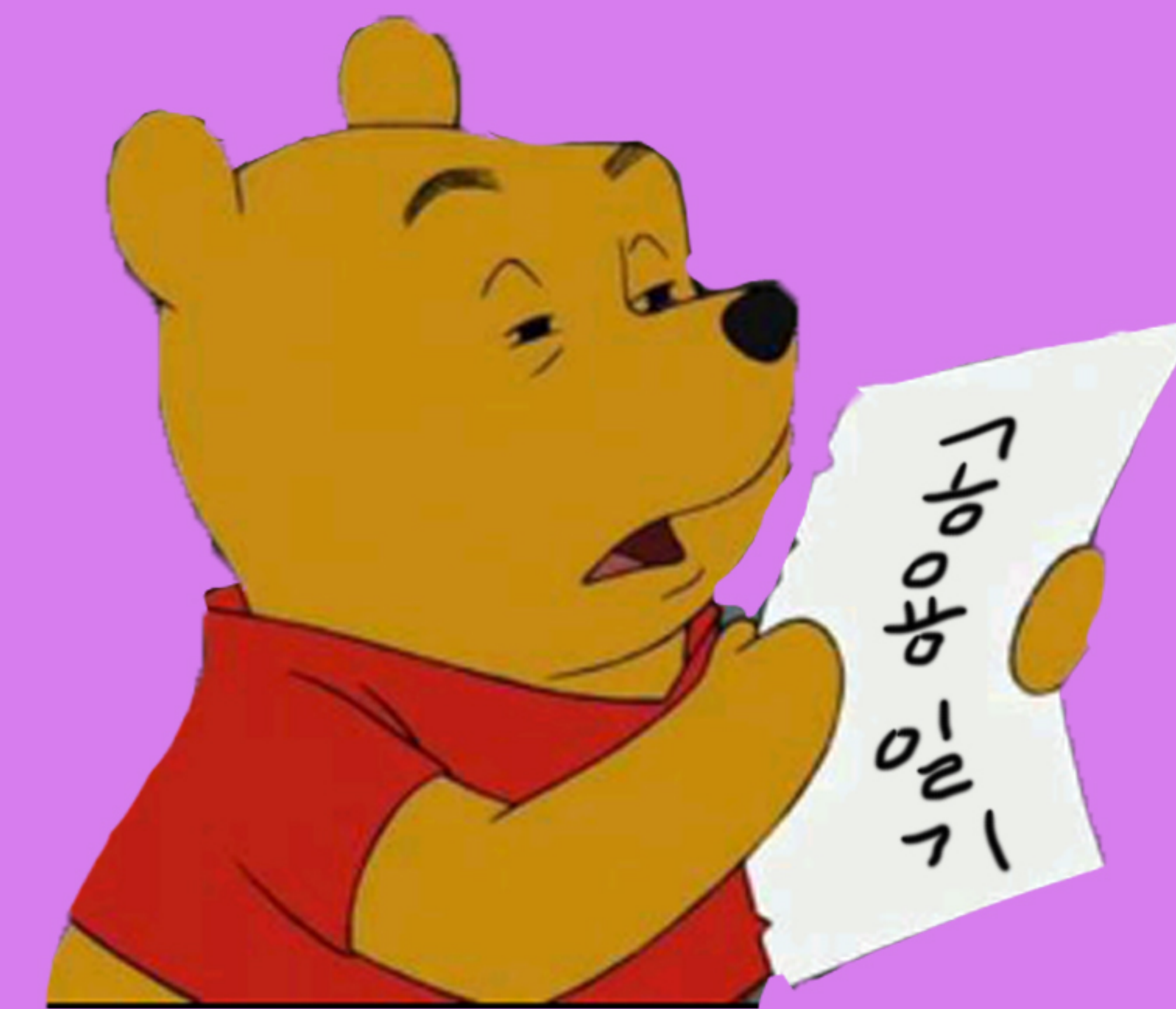
하루에 있었던 일이나, 팀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글이나 그림, 시 등을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쓰는 일기이다. 매일매일 하루에 두 명씩 번갈아가면서 쓰기로 결정하여 ① 결, 용석 ② 지훈, 민기 ③ 결, 민기 ④ 지훈, 용석 ⑤ 민기, 용석 ⑥ 지훈, 결 이러한 순서대로 쓰고 있다.

Why

우리는 공용일기를 쓰게 됐을까? 공용일기를 쓰자는 얘기가 나오게 된 계기는 라운아띠가 되어 교육을 받던 국내훈련기간 중, 캄보디아에 가서 “‘우리 팀의 추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없을까?”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부터였다. 그때 한 단원이 “학창시절 반에서 공용일기를 쓰게 되어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도 그때 일기를 읽어보며 추억을 떠올리게 됐어, 우리가 캄보디아에 갔을 때도 공용일기를 쓰다보면 나중에 갔다 와서도 좋은 추억으로 남을 거 같아” 라고 말하였다. 그 단원의 의견을 들은 다른 팀원들도 공용일기로 인해 나중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도 5개월간의 추억을 고스란히 담은 일기를 읽게 되면서 그때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모아져 공용일기를 쓰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의 ‘추억’ 만을 위해 만들게 되었지, 공용일기가 우리 팀을 변화시킬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다. 추억으로 시작한 공용일기는 서로에게 가지고 있던 불만이나 요구를 직접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고질병을 안고 있던 우리 팀에게, 아주 소중한 ‘소통의 매개체’ 가 되었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공용일기에 글로써 풀어내가며 4명 모두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고, 그로인해 벼랑 끝까지 갔던 우리 팀은 공용일기를 통해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다. 지금은 서로 “만약 공용일기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우리 팀 안에서 공용일기의 위치는 ‘제 5의 팀원’ 이라고 부를 만큼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공용일기 내용을 살짝 살펴보자면~



1. 용석의 9월29일 일기

2. 결이의 9월24일 일기

9월 29일 (토) 용석. Date:
No: 44

아까도 푹푹 처럼 많은 얘기를 했잖아. 근데 나는 예전과 다른 모습들이 확연하게 느껴져. 전에는 서로의 태도가 아예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서로 자기의 얘기만 하다가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고 폭발하고 그랬었는데, 아까는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리고 고쳤으면 좋겠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태도에서 조금씩 양보하고 맞춰 나가고 있구나란 생각이 들었어. 앞으로 많이 갈등이 있을 테고, 많이 싸우겠지만, 그때마다 이런식으로 차분하게 풀어나간다면, 우리팀 점점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 게임이랑 회사에 대한 얘기를 못한 건 좀 아쉽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앞으로 회의나 공동체 분위기를 활짝 활 이야기나 있다면, 회의 의논할 전에 앞서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

오늘은 다사다난했어. 한글학교 끝나고 스테이크도 먹고 (개인적으로 가정에 비해 별로 맛있었어..) 돈부리가서 닭밥도 먹고.. 내 자전거도 잃어버리고ㅠㅠ.

다음달에 핸드폰, 자전거 사면, 다음달은 거의 알거지로 살 것 같아.

뭐 그렇지만 좋은 일들이 있겠지ㅋㅋ. 화이팅!

후식 (샤브샤브먹음, 명덕씨와 고소동) Date: 2012. 9. 24
No: 35

2012년 9월 24일 월요일 [결]

김보미야 후일이거나 오늘도 아주 임여롭게 보냈당ㅋㅋㅋㅋ

처음엔 마냥 좋을 줄 알았어..... 근데 정말 생심하더라.....

센터가 조금 그러할 정도로... ㅠㅌ ㅋㅋ 예전 어제 오늘 500원의 생머리는 영화봤는데, 그냥 뭐 불안했어.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와서... 뭐... ㅋㅋㅋ 영화 다 보고 나서 우리 다 같이 샤브샤브 먹으러 갔는데..... 씬..... 음..... 우리 스타일은 아닌 거 같애

ㅋㅋㅋㅋㅋㅋ 아니 어떻게 우리가 갔을 때 면도 없고 밥도 없을 수 있지???? 너무 무책임한 거 같아. --

관치 돈만 쓰고 배보리지도 않았어ㅠㅌ 다음엔.... 좀 더 관리는 식당까지 맛있게 먹자!! ㅋㅋㅋ 아. 그리고 다음엔 용석오빠가 떡볶이 해줬음 좋겠어..... ㄹㄹ 고주임님이 해주는 라볶이는... 강 좀 빼먹고... 배고파서 맛있는 느낌이 들어.. ㅋㅋㅋ 닭주, 가 아니라 1번죽이나 2번죽 즉말에 해줘ㅋㅋ 1번죽에는 태국도 갖다와야되니까..... 거기서 돈 많이 쓸 거 같으니 외식보단 집에서 해먹자 ㅠㅌ ㅋㅋㅋ

아. 그리고 닭주 아니, 1번죽 1일만에 우리 그 큰 공원으로 피크닉 갈래??? 사진도 찍을 겸 놀러갈 겸 ㅎㅎ 도시락 싸서 자전거 타고 가는 양음음 동자리랑도 도시락 먹으며 누다떨다가 사진 이쁘게 찍고 (for 포스터ㅋㅋㅋ) 놓자ㅋㅋ 1번죽 아니면 왠지 시간이 많을 거 같아서 ㅠㅌ 보셔 준비해야되니까기 지훈민이도 다같이 피크닉 가는 거 원하는 거 같은데, 오빠들은 어때??? 나 샌드위치 잘만들어... ^^

Date: 2012. 9. 24
No: 36

샌드위치 고개 그냥 빵에다가 감자+당근+오이+양파+마요네즈를 섞어 만든 걸 넣으면 끝이야. 거기다 만약 키크미에 있다면 우유 초콜릿같은 거 만들면 재밌겠다 등 방고로틴, 망고, 파인애플 다 챙겨가고 용석오빠가 좋아하는 양꼬치먹구랑 결이 추천하는 크루저 몇병 들고 공원으로 피크닉 go go!!!

생각만해도 익사이팅한데 +-+ ㅋㅋㅋㅋㅋㅋ 갔으면 좋겠당음

여튼, 오늘 하루..... 힘들지 않고 참 임여로 하구원당ㅋㅋ

용석오빠의 후원에 힘입어 시작한 화투도..... 재밌었어 ㅋㅋㅋ ㅠㅌ 비록 10번해서 1번 이겼지만..... 감전 경험이었어..... 흐르르..ㅋ

다음엔 반드시!!!!!! 어기고 말겠어!!! 거

헉???? 근데 그러고보니 10번죽 1일만에 떡볶이야 ㅠㅌ ㅠㅌ ㅠㅌ

해원형이랑 웃음으로 ~~해원형~~ 내기하자 ㅋㅋ 웃음은 내가 좀 함!! +-+ 행복의 신이 되겠어.....! ㅋㅋ 왠지 죽음이 익사이팅해질 거 같은 느낌이다 등 기대될당ㅋㅋ

다들 1번죽 건능하게, 힘차게 시작하자! 화이팅 ~잉!

말말말 !



하루에 2명씩 번갈아가면서 쓰다보니까 내 차례가 너무 자주와서 솔직히 쓰기 귀찮을 때가 많았어. 그런데 공용일기를 통해서 서로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편하게 이야기하고 고쳐나가는 점들을 보며 아 정말 쓰기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앞으로도 열심히 쓰자!! 공용일기 읽는 거 재밌어~!



나는 솔직히 공용일기에 쓰는 말들이 다 진심이야. 이걸 쓰면서 속으로 답답한 일이나 생각을 편하게 쓸 수 있어서 좋았어. 그런데 가끔 나에게 대한 고쳐야할 점이 나왔을 때 가슴이 아팠어.



말할 수 없는 걸 적을 수 있어서 좋은데, 오히려 상처가 되는 내용은 말보다 글이 깊게 다가와서 안좋은 점도 있는것 같아.



가끔씩 지쳐서 쓰기 귀찮을 때도 있지만, 우리팀의 좋은 소통의 통로로 자리 잡아가는 거 같아서 좋아.

공동체놀이

공동체 놀이란?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어떤 한 주제로 이야기 하거나 무엇을 하고난 뒤 생각을 나누는 시간

UNA PODEROSA HISTORIA DE AMISTAD, HONOR Y DE UNA HUIDA HACIA LA LIBERTAD DESDE LOS CAMPOS DE BATALLA DE CAMBOYA



THE KILLING FIELDS

LOS GRITOS DEL SILENCIO

GOLDCREST e INTERNATIONAL FILM INVESTORS presentan UNA PRODUCCION ENIGMA
"THE KILLING FIELDS" con SAM WATERSTON · Dr. HAING S. NGOR Música de MIKE OLDFIELD
Guión de BRUCE ROBINSON Adaptado del reportaje "LA MUERTE Y VIDA DE DITH PRAN",
Publicado por SYDNEY SCHANBERG, en "The New York Times Magazine".
Producida por DAVID PUTTNAM Dirigida por ROLAND JOFFE

The Killing Fields

첫 공동체 놀이

킬링필드의 대략적인 줄거리

1973년 8월 7일, 캄보디아(Cambodia). 캄보디아 주재 미국의 뉴욕 타임스지 특파원인 시드니 쉐버그(Sydney Schanberg: 샘 워터스톤 분)는 1972년 캄보디아 사태에서 크메르군을 섬멸하기 위해 미국 공군이 니크루움에 잘못 폭격하여 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한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캄보디아가 공산주의 크메르 루즈 정권에 의해 함락되기 직전인 1973년 8월 현지 취재차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 도착한다. 그러나 미국은 이것이 알려질까 봐 보도진을 따돌리려 하고 시드니는 뉴욕 타임스지 현지 채용 기자인 캄보디아인 디스 프란(Dith Pran: 행 S. 노어 분)과 함께 어렵게 현지에 가서 참혹한 현장을 카메라에 담는다.

그러나 상황은 시시각각 캄보디아 정부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이에 위기를 느낀 시드니와 프란 일행은 미국 대사관의 도움을 얻어 가족을 탈출시키고 자신들은 남아서 마지막까지 취재를 한다. 그러다 크메르 루즈군에게 붙잡혀 처형되기 직전 프란의 간곡한 설득과 도움 덕분에 시드니와 다른 서구 기자들은 무사히 풀려난다. 결국 수도 프놈펜이 크메르 루즈군에게 함락되고 궁지에 몰린 시드니와 프란 일행은 프랑스 대사관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나 프랑스 대사관 측은 프란이 캄보디아인이라는 이유로 도움을 거절한다. 대사관 밖으로 쫓겨난 프란은 친구들과 아쉬운 작별을 하고 크메르루즈군에게 붙잡혀 강제 노동수용소에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죽지 못해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본국으로 무사히 돌아간 시드니는 먼저 도착한 프란의 가족을 보살피는 한편 프란의 소재 파악 및 구출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허사다. 그 동안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온갖 고초를 겪던 프란은 그곳 수용소에 있는 지식인 출신 크메르 루즈군 장교 파트의 아들을 돌봐주는 일을 맡아 하다가 그 체제에 회의를 느낀 파트의 도움으로 마침내 그 지긋지긋한 수용소를 탈출하여 킬링 필즈, 즉 '죽음의 들판'을 지나 제3국인 타이의 난민촌에 도착한다. 1979년 10월 9일 마침내 디스프란과 시드니의 극적인 재회가 이루어진다.

생각 나누기



제목은 킬링필드인데 킬링필드를 자세하게 다루지 않은 것 같아. 한사람이 겪은 킬링필드의 이야기보다는 더 다양한 사람들이 킬링필드 때 어땠는지 알려주면 더 좋았을텐데... 이 영화를 통해서 킬링필드에 대한 공부 가 될 줄 알았는데... 킬링필드를 공부하기엔 좀 부족한 감이 있어서 아쉬웠어 진짜..



음... 책을 읽으면 킬링필드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더 좋을 것 같아



그런데, 킬링필드는 미국의 잘못인데 영화에선 미국의 잘못을 부각시킨 건 아닌 것 같아. 미국인과 캄보디아인의 우정을 그린 것에서 멈춘 것 같아서 아쉬워.



그런데, 킬링필드 때 얼마나 죽은거야?



검색해보니까 약 200만 명 죽었다고 나왔어! 800만 명 중에 1/4이 죽은거지



더 검색해보니 200만 명 중 80만 명은 미군의 민간인 시설 폭격으로 사망하였고, 크메르루즈군의 숙청 등으로 30여 만 명이 죽었고, 이후 고립정책으로 80여 만 명이 사망했다고 나와 있어. 크메르루즈군의 숙청보다 미군의 폭격으로 사망한 경우가 더 많은... 이런 사실을 보면 영화를 미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잘못을 축소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



오! 진짜진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다. 크메르루즈군보다 미군이 더 많이 죽었다니.. 그런데 이 때는 우리나라보다 캄보디아가 잘살았다고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캄보디아를 보면 정말 힘들어 보여.



아, 우리나라도 북한이 70년대까지는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던 것 같다. 우리는 크메르루즈가 200만명을 모두 학살한 줄 아는데 오히려 미국의 잘못을 강조해야 될 것 같아



미국이 그렇게 캄보디아에 무자비한 폭격을 한 건 베트남 전쟁 때 캄보디아는 중립을 선언했는데, 미국은 그런 게 마음에 안들었고, 베트남군이 캄보디아에 땅굴을 파 놓은게 많아서 그걸 없앨라고 폭격을..



.....미국은 참 그래.....



미국이 필리핀 침략 때도 60만 명을 죽였는데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캄보디아 출신 배우 주인공은 아카데미에서 조연상을 받았는데 딱 봐도 주연인데 조연을 준 것은 어느 정도 인종차별도 있는 것 같지 않아?



근데 나도 사실 조연인줄 알았어.. 그리고 조연상이지만 상도 많이 받았어



아! 아카데미는 미국적인 성격이 정말 강해서 미국인이 아닌 사람이 주연상을 받는 경우가 정말 드물어



오! 그래? 그런데 영화 보다 보면 감정이입 돼서 내 가족이 저랬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씩 영화 보는데 엄청 불편하고 무서웠어.. 내가 6.25를 겪은 꿈을 끈 적이 있어서...그 때 꿈이 진짜 생생했거든..막 나 동굴로 도망가고..



나는 이걸 보면서 4.3사건이 생각나더라.. 이런 사실을 쉬쉬하는 미국이나 사건을 축소시켰던 과거 정부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



킬링필드만 봐도 이긴 자에 의해서 역사가 쓰여진다고 하지만 너무 킬링필드가 미군의 잘못이 싹 감춰지고 크메르루즈놈들이 죽인 거라고 역사적으로 가르치고 있어. 미군이 오히려 캄보디아에게 사과하고 피해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생각해 보니 이걸 이라크 공격 한 거랑 똑같은 것 같아.



테러리스트를 잡으려 한다고 거짓으로 말하고 석유 때문에 이라크와 전쟁을 했는데 사실 이걸 석유와 무기매매 때문에 한 거 아냐?



그래? 그런데 캄보디아는 매년 이렇게 물이 넘치면 어떻게 발전을 하지? 일년에 한 번씩 나라가 새로 시작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



여기는 다 평지라서 댐을 만들지 못하고 그래서 그 많은 물을 어디에 둘 곳이 없어서 홍수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 그런데,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당한 게 많아서 위안부 등 여러 가지로 일본에게 요구를 하잖아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위치까지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 아닐까? 하지만 캄보디아는 아직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니라서 미국에 요구를 할 수 없는 위치인 것 같아.
아 그리고, 캄보디아에서는 킬링필드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만약 교육을 한다면 정말 어떻게 할까? 이 킬링필드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받는 걸까?



마지막으로 현지인들에게 킬링필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문고 싶다.



공동체 이야기



킬링필드에 대한 내용이 많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아쉽긴 하지만 이 토의를 통해서 미국이 잘못된 부분이 많은데 세계사 부분이나 그런 게 미국이 잘못된 게 아니라서 아쉽고, 마지막으로... 훈센이 빨리 물러났으면 좋겠다.



킬링필드가 미국만 폭격했으면 캄보디아가 여러모로 말을 할 수 있었는데 캄보디아도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하기가 껄끄러운 점이 있는 것 같아.



현재 캄보디아에서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킬링필드를 일으켰던 주범들이기 때문에 과거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 같아. 그로인해 그 사람들은 여전히 잘살고 있고, 내가 먹고 살만하니 킬링필드로 인한 피해배상을 미국에게 요구하지 않는 거고, 만약 요구한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 같아. 캄보디아나 우리나라나 여러 역사적 사건들이 다 끝나고 나서 바로바로 후손들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재판대에 세우고 짓값을 치르게 해야 할 거 같아. 그게 잘 안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



국내훈련때 교육받았던 세계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어. 교육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킬링필드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빈곤한 국가가 생기는 것은 세계화 때문이라는 걸 제대로 느끼는 기회였다고 할까. 미국이 전쟁을 핑계로 캄보디아에 엄청난 피해를 남기고 그 여파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2~3차 피해를 야기하는 상황은 세계화가 얼마나 비극적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고, 막막한 심정이야.

캠팀의 시시콜콜한 이야기

민기가 말하는 지훈이 이야기

지훈이가 모기 물렸는데 급한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긁다가 다리에 상처가 심해졌습니다. 지훈이가 굉장히 아파해서 조금 푹 쉬면서 몸조리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아프다면서 자전거타고 놀러나가고 쇼핑했습니다. 이에 지훈이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심기가 불편해진 민기는, 다리 아픈 걸로 장난 10단 콤보를 퍼부었습니다. 장난 콤보 8~9단에 다달았을 때, 지훈이는 폭발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저희는 회의시간 내내 화해를 위한 싸움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리에 상처가 심해져서 우울했는데 내 아픔을 희화화 시킨 조민기 단원 때문에 다리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된 부분도 엄청 많아서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조민기의 10단 콤보에 없는 기력까지 써서 파이트를 뚝 건 사실이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ㅋㅋ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민기가 '적당함' 이 무엇인지 배웠으면 좋겠네요. 녀석 사과의 의미로 맛있는 건 사준다고 했으면서 아직도 안 사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서 사주고 양금을 다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민기가 사주면 커피 딱딱꼬 뜨꺼 엄청 사줄거임! 진짜로)회의시간 내내 화해를 위한 징그러운 싸움이 끝났으니 이젠 사이좋게 지내자. 그리고 민기군이 요즘 제 머리 잡아 뜯는거에 재미를 붙였는데 작작 했으면 좋겠어요. 친구야 스롤랑



결이가 말하는 민기 이야기

9월 30일 추석이었던 그날밤..... 저, 용석오빠, 민기오빠, 명덕씨(다일센터 스텝)는 윷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지훈 언니는 아팠어여ㅠ) 그날은 특별히 용석오빠가 자전거 2개를 잃어버린 날이어서 용석오빠와 같은 팀이 된 저는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자전거를 잃어버린 불운이 윷놀이까지 번질까봐..... 하지만 저와 용석오빠의 얼굴은 밝아지고 민기오빠의 얼굴은 어두워졌습니다. 첫 번째 판은 다일센터 근처에서 파는 라면과 커피를 걸고 했으나 민기오빠팀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흥분한 민기오빠는 한판 더 하자며 자진해서 음료수와 과자를 걸고 두 번째 판을 했지만, 던지기만 하면 윷이 나오는 용석오빠의 천운으로 인해 또다시 민기오빠는 패배의 쓴맛을 봤습니다. 이번에 또 하면 이기겠지라고 생각한 민기오빠는 커피를 걸고 세 번째 판을 했지만..... 자전거를 잃어버린 대신 윷만 나오게 된 용석오빠로 인해 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3번이나 질 수 있냐면서 흥분한 목소리로 울것만 같던 민기오빠는, 마지막 4 번째 판에 이김으로써 정말 아기같은 밝은 표정으로 “이제 그만하자~~~!!!!” 라는 말을 던지고 훌연히 사라졌습니다.

윷놀이 시작할 때 장난으로 용석이형에게 자전거도 잃어 버렸는데
져줄까? ㅋㅋ

하며 장난처럼 시작했지만 3번째 판이 끝난 후에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판에도 거의 지는걸 간신히 명덕이의 3연속 윷으로 역전승을
거둬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만약 졌으면...한동안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판 이기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라고 생각합니다.



용석이가 말하는 결이 이야기

결이는 잠을 잘 잡니다. 침대에서 잘 자는게 아니라 밖에서 잘 잡니다. 회의시간, 수업시간, 차에서.. 등등 하지만 민기랑 내가 결이 자는사진을 찍고 이거 보고서에 올리면 재밌을것같다고 계속 올린다고 하니까 결이가 웃으면서 화를 냈습니다. 정말 화났는지 그다음부터는 결이의 자는 모습을 볼수가 없습니다. 결이의 자는 모습이 특징으로 굳혀지기를 기대했었는데... 하지만 요즘은 그대신 '웃' 을 잘 합니다. 가끔씩 장난이나 불만이 조금 심해지면 어김없이 웃을 합니다. 저번에 민기가 불만을 얘기했는데 결이가 웃으면서 화를 내는 바람에 민기가 이틀동안 패닉에 빠져 우울했었습니다. 하지만 결이는 자기의 웃하는 모습을 알고 고치려 하는 착한 아이입니다.

처음에는 시차적응 때문에 제가 많이 자는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순간 조금 지루하다 느낄 때, 저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안졸려고 해도....졸고.... 그러던 어느날 민기오빠와 용석오빠가 숙소가는 차안에서 잠든 저의 모습을 몰래 사진으로 찍어 보고서에 올리겠다고 협박하셨습니다. 그때 위기감을 느낀 저는 그날부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웃 하는 것은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기오빠도 장난 적당히 쳐주세요~!



지훈이가 말하는 용석 이야기

용석오빠의 시시콜콜한(이라고 썼지만 그냥 무지막지하게 슬픈)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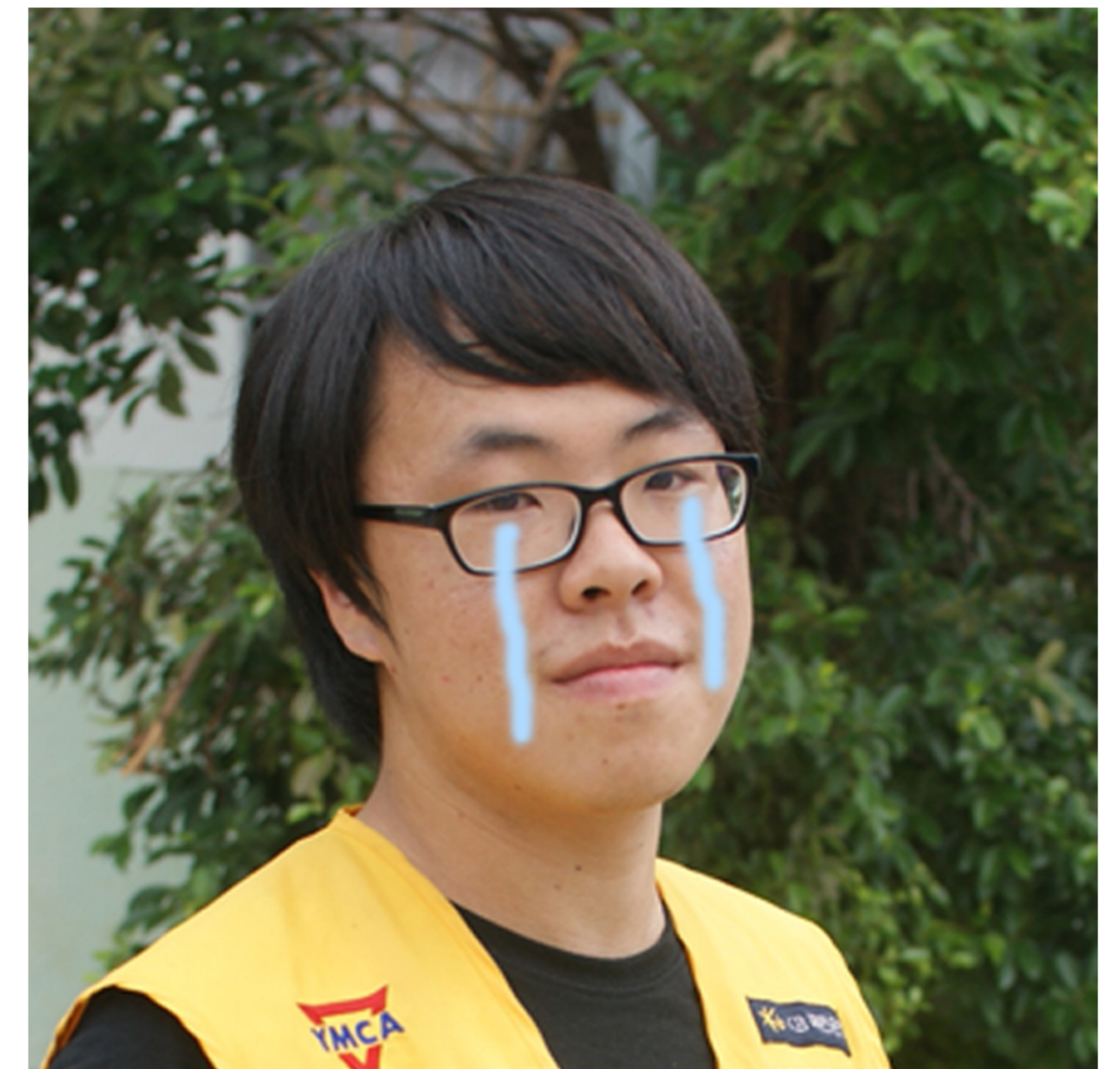
캄보디아에서는 제일 가는 우리들의 교통수단은 툽툽이 그리고 자전거...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전 아띠들이 남기고 간 자전거로 시엠립을 누비고 다닌 지 3주째..

팀원들을 모두 멘붕으로 몰아넣은, 그리고 며칠동안 용석오빠를 최고로 우울하게 만든 사건이..생기게 되었다.

바로 말로만 듣던 '자전거도둑' 을 용석오빠가 만나게 된 것이다. 그것도 이틀 동안 3대나...도둑 맞은 오빠... 밤마다 누워서 꿈꾸던 갤럭시노트2를 사면 무슨 기능이 있다고 설명했었던 그였는데..갤럭시노트2는..물 건너 갔고...그는 500불을 ATM기계에서 인출을 하게 되었다. 1대는 앙코르마켓에서 장을 보다 잃어 버렸고, 그 날 공용일기에 긍정적으로 '내일은 좋은 일이 있겠지'라며 애써 마음을 추스렸는데 맙소사! 다음 날 롤러스케이트장을 가서 피자를 사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나오니까 뚝! 해원협스텝한테 빌린 자전거까지 잃어버린 오빠. 자전거2대를 잃어 버린 날은 공교롭게도 추석이었는데 추석맞이 윷놀이 4판 중에 3판을 이겼어도 전혀 기쁘지 않았던 오빠.. 이번 주말에 자전거3대를 사러 가는 오빠 부디 이번 자전거를 잃어 버리지 말고 자물쇠도 같이 꼭 사서 열심히 시엠립을 누비세요.

나는 살아오면서 줄곧 럭키가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여기선 조금 핀트가 어긋났나 봅니다. 자전거 잃어버린건 쪼오오끔 슬프지만 앞으로 즐거울 일들을 위한 액땜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캄보디아사람들은 죄다 착하지만 관광객들에게 물이 든 시내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쪼끔 있나봅니다 ㅠ ㅠ 자물쇠 잠그지 않아도 아무도 안가져간다는 말을 믿고 자전거를 아무렇게나 내버려둔 제 잘못입니다.. 자전거를 잠그지 않으면 없어질 수 있는 건 우리나라나 캄보디아나 똑같습니다. 역시 세계는 하나입니다.



카뎀 개인 에세이

민기의 에세이

어느덧 캄보디아에 온지 1개월이 지났다. 오기 전에 상상했던 캄보디아의 모습은 내가 직접 겪은 캄보디아와 너무 많이 달라서 적응하기가 힘들기도 했다. 생각보다 실망한 것도 생각보다 나은 것도 있었다. 이래 저래 적응하고 고민하다 보니 1개월이란 시간이 참 짧다고 느꼈다. 캄보디아에 와서 오기전과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은 생각이 많아 졌다는 것이다. 최근에 한 라운아띠 단원의 글을 있었는데 그 단원은 라운아띠를 지원하게 된 것부터 라운아띠로서의 모든 활동들이 행복하다고 한다. 그 글을 읽고 나를 되돌아 보게 되었다. 나는 과연 이번 8기 라운아띠로서 행복 한가? 나는 라운아띠가 된 것, 라운아띠로서 하는 모든 활동에 감사했다. 부족한 나를 뽑아 주셨고 부족한 나를 팀원들이 함께 서로 도우며 활동 하는 것에...

감사하기는 하나 “행복한가?”를 물어본다면 확실히 대답할 수 없었다.

매일 반복되는 힘들고 지치기도 하는 밥퍼와 빵퍼 활동, 여러가지 일들 감사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닐까? 살면서 생각해보지 못했던 행복에 대해 생각하려고 하니 무엇이 행복인지도 잘 모르겠다. 또한 나아가 내가 라운아띠를 지원하기 전 생활은 과연 행복했는가? 그 또 한 대답할 수 없다. 가끔 그런 생각도 든다 내가 매일 봉사하는 것이 과연 하루 봉사하러 와서 100달러를 내고 가는 사람의 100달러보다 가치가 있는 것일까? 내가 5개월 동안 그들과 나누는 것보다 그 100달러가 그들에게 더 가치있고 행복한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도 된다. 처음엔 그냥 즐기자 즐기다 보면 뭔가 얻는것도 있겠지?란 마음으로 왔는데 와보니 오만 생각만 많아진다. 아직 본격적인 교육 봉사 시작하지 않아서 일지도 모르겠다. 중요한 건 내가 이제껏 해보지 못했던 고민들을 하기 시작한 다는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캄팀 아띠로 와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면 행복할까? 남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나아가 5개월 뒤에 나는 무엇을 해야 행복 할 수 있을까? 이곳 캄보디아에서 끊임없이 나누고 생각하고 싶다.

지훈이의 에세이

오늘도 하루가 어떻게 갔구나. 에세이를 쓰려니 뭔가 벅차오르는 무언가가 느껴지는 구나. 우리가 여기에 온 지도 한 달이 되었고, 뭔가 큰 것을 이룬다는 생각은 버리고 그냥 현지인이 되어 살아가자 했는데 실상 현지인이 된 것이 맞나? 는 생각에 그냥 고개가 숙여지고, 내가 현지인이 되려고 어떤 노력을 했지? 한 달 밖에 안됐는데 내가 너무 성급한 건가 하면서도 이 한 달이 아쉽고, 앞으로의 4달이 왜 이리 짧게 느껴지지... 아, 일기를 봤더니 왜 이리 슬프고 서러운 일은 많았나 싶으면서도 또 생각해 보면 일 끝나고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좋아하는 단골가게들도 생기고 나름 즐거운 한 달이었던 것 같아. 또, 여기서 시작한 십자수에 요즘 완전 집중해가지고는 여기 떠날 때 엄청 예쁜 십자수 하나 완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 어렸을 적 할머니 집을 갔는데 할머니가 골무를

끼고 버선을 꿰매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난 어렸을 적 참 보기 좋았어. 그런데 한국에서는 바느질이 그렇게 좋은 그 무언가? 음 그러니까 삶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는 실과 바늘을 가지고 바느질 하는 것도 엄청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좋아! 한 달 동안 차 시트도 꿰매고 피업이 옷도 꿰매고 앞치마도 꿰매고... 좋아하는 일이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기도 하니 얼마나 고맙고 소중하고 재밌어! 앞으로의 4달 동안도 소소하지만 남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활동하고 싶어. 그리고 가장 도움을 주고 그리고 받고 싶은 건 우리 팀원들이야.

아, 그리고 아띠방 치워서 한 번씩 아이들이랑 놀고, 쉬고... 아띠만의 공간이 생겨서 좋은 것 같아. 여기 전 기수들의 사진들을 보면 좀 행복해지고 재밌어 (정말 유정 단원 사진이 사진들 중 최고 압권인 듯!) 정말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나한테 실망도 많이 하고 또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아. 생각만치 행동이 안 따라 줄 때는 속상하기도 하지만 뭐, 엇빠야! (문제없어) 앞으로 더 나아지는 나 그리고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



결이의 에세이



3달 전에는 라온아띠에 두근대는 마음으로 지원하고, 2달 전 비가 억수로 오던 그날에는 어떻게든 라온아띠에 붙겠단 일념 하에 신촌에서 당차게 면접을 보고, 최종합격소식을 들은 날에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르며 좋아했었던 그날. 한 달간의 국내훈련, 지역훈련, 1박 2일 발대식, 2박 3일 출국캠프 그리고 출국. 모든 게 다 순식간에 지나가버렸다.

출국하기 전 한 달간 교육을 받는 단 사실만으로도 캄보디아는 멀게만 느껴졌는데, 지금 나는 캄보디아에 온지 한 달이 지나고 어느새 10월을 맞이하고 있다. 5개월의 여정 중 오 분의 1이 지난 이 시점에서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자면, 태어나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아파본 적은 처음이었다. 한국에 있을 때 내 몸은 정~~~~말 튼튼했다. 1년에 몇 번 아플까말까할 만큼 아주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 캄보디아에 온지 일주일? 이주일 만에 International 병원에 다녀왔다.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물갈이(한국에서 쓰는 물과 캄보디아에서 쓰는 물이 달라지면서 몸에 탈이나는 증상)을 일주일 넘게 하고 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쭈쭈 굶어가며 다른 팀원들은 다 나아서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닐 동안 나는 방안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다. 도대체 왜 나는 캄보디아에 와서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 된 건지..... 캄보디아에서 나는 건강히 살 수 있는 체질이 아닌건지..... 참 아이러니하다. 여기에 도착함과 동시에 한국이름을 쓰지말고 아이들이 더 기억하기 쉽고 부르기 쉬운 캄보디아이름을 사용하기로 다짐했던 나는 아이들에게 ‘깐냐’ 라는 내 크메르이름을 알려주었다. 아이들이 “네약 츠무어 어와이?(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크놈 츠무어 깐냐(내 이름은 깐냐야)” 라고 말해주자 아이들의 표정은 갑자기 밝아졌다. 한국이름을 알려줬을 때와 캄보디아 이름을 알려주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은 천지차이였다. 솔직히 깐냐라는 이름을 알려주기 전에 ‘내가 5개월후에 here를 떠났을 때 누군가와서 한결을 아냐고 물어보면 다들 모른다고 하겠지? 그럼 섭섭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아이들이 ‘나’ 를 기억해줄거라는 이 생각부터가 나의 큰 욕심이었다. 나는 여기에 ‘내가 아이들에게 사랑을 준 만큼 그들이 나를 기억해줄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었다. 내가 봉사하고 왔다는 것을 자랑하기위해 온 게 아니라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을 아이들과 함께 보내며 그들이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도와주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다 함께 잘 살 수 있을 까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해 라온아띠라는 자원활동을 온 것이다. 그런데 이름에서부터 ‘내가 떠남과 동시에 아이들이 나를 잊으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하다니.....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우리가 외국인을 만났을 때 그의 이름이 ‘크리스’ 라고 하면 낯설어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이질감 없이 쉽게 나를 받아들이기 위해선 ‘깐냐’ 라는 캄보디아이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한달동안 누군가 내 이름을 물어볼 때마다 ‘깐냐’ 라고 대답해주었고, 아이들은 “깐냐???” 하고 의아해하면서도 좋아했다. 특히 깐냐라는 동명이인을 항상 데려와 이 친구도 깐냐라면서 이 동네에 깐냐가 많다는 것도 알려주었다. 우리나라의 민지, 민수와 같은 흔한 이름이라서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름 하나만으로도 아이들과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고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뻐다. 앞으로 남은 캄보디아 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갖고 있던 욕심은 버리고 좀 더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행동하고 살아야겠다.

용석이의 에세이

출발 전부터 우여곡절이 많은 우리팀이었습니다. 서로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말도 안 할 정도로 멀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 많이 이야기하고 서로에 대해 많이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서 우리팀은 희망적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게 될 활동에 대해서는 걱정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막막합니다. 아직은 캄보디아말이 서툴러서 의사소통도 잘 안되고, 그래서 아이들과도 아직 많이 친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는 유치원, 중학교, 쌀라아띠 등 갑자기 하는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저만의 고민도 많습니다. 라온아띠에 지원할때는 많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이웃이 있기에 마음껏 베풀어 주는 것. 배고픈 이들에게 밥을 주고 배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교육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라온아띠에 합격이 되고 나서 국내교육에서 배운 것은 조금 다른 것이었습니다. 국내교육에서 라온아띠는 어떤 단체이고 국제자원활동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혼란이 옵니다. 사실 무엇이 맞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먼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좀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캠팀 사진전

우리팀의 사이좋은 모습 ^-^



캠팀 사진전



▲ 물에 잠긴 시엠립



▲ 창밖을 보는 아이들



▲ 다일 미녀 삼총사와 삼촌



▲ 레악아 웃어 웃어 ^-^

캠팀 사진전



▲ 캄보디아인이 즐겨먹는 쥐고기.. 맛은 어떨까?



▲ 차시트를 열정으로 꺾매고 있는 지훈이



▲ 캠팀의 Meatless Sunday !



▲ 피음이 포즈 따라잡기 !